

오늘의 주요기사

2022. 04. 20 (수)

인쇄 면수	제목	언론사	카테고리	면수
1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 기록	전민일보	문화	014
2	전주대, 전주시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새만금일보	사회	005
3	전주대,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주매일	경제·사회	004
4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과,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라매일	교육&문화&체육	005
5	재개발로 사라지는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주일보	종합	004
6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호남제일신문	경제·교육	005
7	전주대,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북타임스	문화	005
8	재개발로 사라질 감나무골의 역사를 담다	전북금강일보	문화	012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 기록

전주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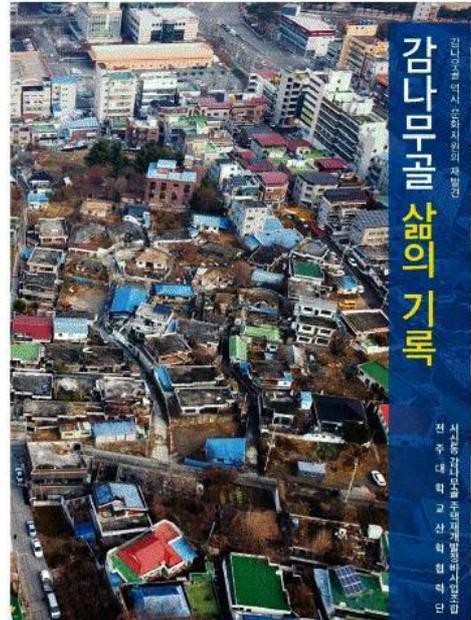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정욱)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하여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보고회를 하게 됐고 그제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



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가온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마을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은 韓문화 특성화 분야로써 지역사 전문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지역 산업의 문화유산 인력, 역사학의 다양한 분야와의 창조적 융합 등을 통한 문화융합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김영무기자

전주대, 전주시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에 따르면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

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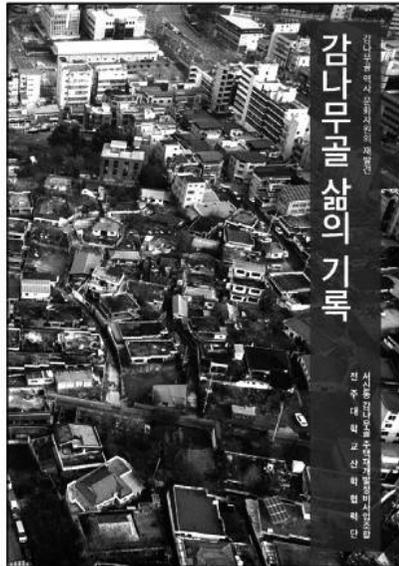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가온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마을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염형섭 기자

전주대,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문화·자원 재발견... 주민들 삶의 흔적이 반영된 기사·사진·주민 인터뷰로 구성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지난 18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과 공동으로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정욱)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1년 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해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보고회를 갖고, 그제서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

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이가온 학생(역사문화콘텐츠학과)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특히 마을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과,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 재발견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지난 18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

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정욱)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

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해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보고회를 하게 됐고, 그제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송효철 기자

재개발로 사라지는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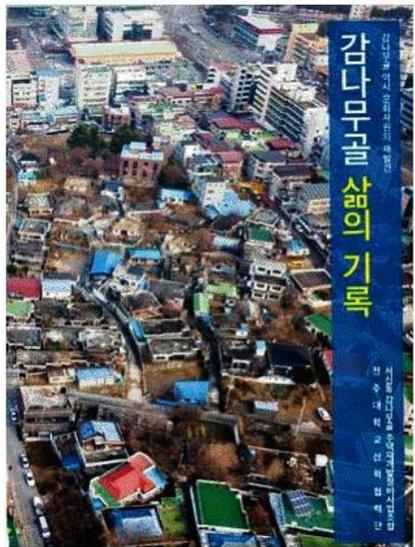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감나무골 역사 및 신문기사·주민 인터뷰 등 구성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여간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내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됐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하여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

정비사업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보고회를 하게 됐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

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기은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마을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은 韓문화 특성화 분야로써 지역사 전문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지역 산업의 문화유산 인력, 역사학의 다양한 분야와의 창조적 융합 등을 통한 문화융합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전주시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지난 18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정욱)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하여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



친 보고회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

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가온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마을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애 기자

전주대,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관련 역사·주민 인터뷰 등 기록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지난 18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 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정욱)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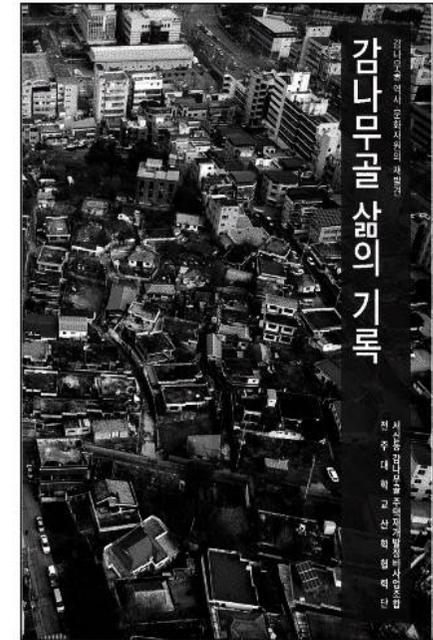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하여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보고회를 하게 됐고, 그제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가온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마을 어르신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감나무골 삶의 기록’ 책 표지

/김영태 기자

재개발로 사라질 감나무골의 역사를 담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감나무골 삶의 기록 발간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지난 18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감나무골 삶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은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지원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신동 감나무골의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 기록집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감나무골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재 발견하고 주민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감나무골의 역사 및 신문 기사, 마을·골목길·상가·주택 등의 사진과 주민 7명의 인터뷰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초기에는, 감나무골의 숨겨진 삶의 이야기를 증언할 어르신들을 찾지 못해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사업단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보고회를 하게 됐고, 그제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개인 소장 사진을 제공

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전주시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로 발전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마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전북일보, 전주문화원, 전주시민기록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서신초등학교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은 값진 경험이었고 마을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감나무골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동취재부 gkg8@dumnet